

올해도 열심히

Work Hard Again in 2013

히브리서 12:1-2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1월 6일 신년주일 설교

¹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²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열심히 살자

또 한 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마음은 늘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는 부끄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늘 고맙습니다. 부끄러움과 고마움으로 또 새해를 맞았는데 올 연말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전히 부끄럽고 고맙고 그럴까요?

새해가 되면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결심이 곧 소원이기도 하지요. 돈도 좀 더 있어야 되겠고, 사는 보람도 좀 더 느끼고 싶고, 나이가 들면서 운동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겠고, 학생이라면 성적도 좀 올리고 싶고, 가정마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따뜻한 가정이 되면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새해에는 근심 걱정 좀 덜 하고 주님을 든든히 믿고 의지하면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건 물론 없지요.

잘 안 될 때는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새해에 운동을 꼭 하고 싶을 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끊는 거지요? 돈이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그런데 제가 스무 해 전에 한국에서 토폴 강사를 할 때 보니까 여름 방학 때 돈만 내고 안 오는 대학생이 많습디다. 돈부터 내면 공부를 안 할 수 없으리라 믿고 등록은 했는데 환경이 도저히 안 따라 줘 결국 돈만 날린 겁니다. 우리 돈 있는 거기 마음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있다고 몸까지 저절로 가는 건 아니지요. 돈이 힘이 있긴 하지만 돈을 의지하면 낭패를 봅니다.

돈보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담배를 못 끊고 수십 년을 피다가 딸하고 약속을 해 끊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목상을 훈련할 때 친구하고 같이 했더니 나누기도 하고 점검도 되니까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새해 들어 말씀을 더 보고 싶다. 기도도 더 하면 좋겠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라고 있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혼자 해도 잘 할 수 있지만 같이 하면 더 잘 됩니다. 본문을 정해 주면 그 본문 열심히 읽고, 요절 외라 하면 안 돌아가는 머리 부지런히 돌려보고, 문제를 풀어오라 하면 좀 쉬워드 정성들여 답안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많이들 갖고 오셨지요? 일단 시작하면 관성의 법칙이 도와줍니다. 그렇게 일 년 동안 꾸준히 해 보십시오. 상당한 진보가 있을 겁니다.

인생은 달리기

새해를 맞으면서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며칠 지나갔지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날짜 쓸 때 연도가 2013으로 바뀐 것 말고 거의 같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달라지지는 것 아닙니다. 왜요? 사람이 그대로니까요.

그럼 새해고 뭐고 없이 그냥 가지 새해 첫 주일이니 뭐니 하는 건 왜 따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물처럼 흐르는 거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해, 달, 별을 두셔서 이 시간을 똑똑 잘라 놓으셨습니다. 하루, 한 달, 한 해,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기 때문에 날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힘을 낼 수 있고 끝이 있으니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도 중요하지만 일 년도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살 때는 멀리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때는 좀 길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달리기와 같다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의 달리기, 말하자면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를 잘못 알아 엉뚱한 길로 달릴 수도 있고, 규칙을 어겨 중간에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잠시 주저앉았다가 세월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전혀 돌아볼 기회가 없다가 막판에 가서 그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달았는데 다시

할 기회가 영영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지요? 토끼가 먼저 앞섰다고 중간에 낮잠을 자다가 천천히 따라온 거북이한테 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끼가 아차 했겠지요? 그런데 경기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삶을, 한 번 실수로 그렇게 날려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나누어 놓으시고는 날마다 돌아보아라,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지정된 코스로 잘 달려 왔는지, 또 무효가 안 되게 규칙을 잘 지켰는지, 남들은 바쁘게 뛰고 있는데 혼자 퍼져 자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라 하셨습니다. 혹 코스에서 벗어났다면 얼른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혹 규칙을 어겨 실격이 되었다면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 혼자 놀고 있다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달려야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했으니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매가 없는데도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눅 13:6-9). 지금 이 시간 마귀가 우리 귀에 어떤 말로 속삭이겠습니까? 새해라고 별 것 있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면? 성경읽기도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러다 말 것 아니냐? 그냥 관둬라. 장사 한 두 번 하냐? 시를 좀 읽은 사람한테는 ‘올해가 가면 내년도 멀지 않으리’ 그런 구절을 들려주겠지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해 공칩니다.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다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하자, 이거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수

본문을 보니 우리는 모두 운동선수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달리기를 달립니다! 종목은 달리기입니다. 빨리 달리는 경기입니다. 그 시대에 있던 운동경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는 로마 시대였지만 그리스 때부터 도시국가 대항전인 운동경기를 수백 년 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해마다 열린 올림픽이 대표적이고 그 앞뒤로 다른 시합도 자주 있었습니다.

고대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로마 시대까지 천 년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 세기 말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명령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가 누구니까? 기독교를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선언한 황제 아닙니까? 올림픽이 제우스나 아폴론 같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운동경기를 우리 신앙생활에 자주 비기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달리기에 비겼는데 운동경기를 통해 신을 섬기던 그 정신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신화의 신이 아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운동경기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로써.” 달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만두면 못 이깁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전 9:24)? 이기려면 숨이 찬 것도 참고 팔다리 아픈 것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고전 9:25). 목표는 이기는 겁니다. 그러자면 참아야 합니다. 절제도 인내도 다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벗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당시 경기의 어떤 모습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예, 당시 운동경기는 남자만 참가하되 전차달리기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나체로 경기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참가만 못 하는 게 아니라 구경도 못 하게 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옷 다 벗어던지고 힘껏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발목을 붙잡는 온갖 욕심, 교만, 위선, 이런 것들, 특히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죄의 짐까지 다 벗어 버리고 활가분한 몸으로 달려야 됩니다.

둘러싼 구름

시합은 선수끼리 하는 거지만 선수만 있으면 재미가 없지요. 누가 또 필요하니까? 심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관중이 있어야 됩니다. 시합장에 가보면 막상 경기하는 사람은 몇 안 되고 대부분이 관중 아닙니까? 경기장은 좁고 관중석은 넓습니다. 구경하면서 환호하고 격려도 하고 야유도 보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동참하는 관중이 있을 때 경기도 더 열기를 띠겠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관중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관중이 얼마나 많은지 구름처럼 많다 했습니다.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올림피아의 경기장은 오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만 명이면 대단하지요. 우리가 하는 인생의 달리기에도 관중이 많은데 구름처럼 많습니다. 둘러싸고 있다 했으니 우리는 가운데 있는 트랙을 달리고 사방에 앉은 관중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냥 “허다한 증인”이라 해도 될 걸 구름처럼 많다는 말은 왜 했을까요? 우리말은 구름 같다 해서 직유법을 썼지만 원문

은 “거대한 증인의 구름”이라는 말입니다. 구름은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구름 자체가 영광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눈부셔서 구름으로 덮은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을 때 거기 구름이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계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도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마 17:5). 이 구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우리를 덮고 계시고 감싸 보호하고 계십니다.

구름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하늘로 가실 때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까 (행 1:9).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마 24:30; 26:64; 계 1:7; 10:1; 14:14-16).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도 구름 위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살전 4:17; 계 11:12). 그래서 미켈란젤로 그림에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구름 위에 올라 서 있습니다. 구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는 구원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확신 가운데 열심히 달리라는 말이겠지요?

구름 같은 증인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관중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누굽니까? 증인입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이미 암송구절에 나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로 또 삶으로 증언할 사람들입니다.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처럼 증인은 또 우리 믿음의 고백과 삶을 잘 지켜보고 그대로 하나님께 말해줄 사람이기도 합니다 (딤후 2:2). 우리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첫 날말이 “이러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을 잘 살펴 보라는 말이겠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은 히브리서 11장 곧 믿음장입니다. 거기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벨부터 아브라함, 사라, 이삭, 모세, 라합, 삼손, 다윗, 사무엘, 등등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달리기를 지켜보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달리는 이 달리기를 이미 해 우승한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9).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노라고 삶으로 또 죽음으로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고 구름처럼 뻗뻗하게 모여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것을 삶 전체로 보이며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쓰러지지 말라고, 끝까지 잘 달려 저희처럼 상을 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주위에 이들뿐입니까? 아니지요. 원수 곧 마귀도 있습니다. 경기장에 가 보면 그런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우리 편 응원 대신 상대편을 저주합니다. 달리다가 넘어져라, 넘어져서 다쳐라, 그래서 그대로 저버려라, 이런 악담을 하지요?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손은 못 씁니다. 이미 끝난 경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구름 위로 올라갈 때 마귀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계 11:12).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구름처럼 뻗뻗하게 둘러싼 증인 한 가운데 낮익은 얼굴이 하나 보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관중석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지요. 로얄석이 따로 있는데 그 바로 앞이 골인 지점입니다. 목표 지점을 보고 달려가는데 아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곁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증인의 한 분이십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십니다 (계 3:14; 1:5). 우리 주님이 이미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셨습니다 (딤후 6:13).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 이 달리기를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이 구원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너머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활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요, 당신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 구름처럼 둘러싼 증인들과 또 헉헉거리며 달리는 우리를 보는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을 미리 보시고 그 과정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운 일까지 다 견디신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 주님은 다른 증인과 다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원문은 “믿음의 권세자요 완성자이신 예수”입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의 모든 문제를 통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포함한 다른 증인은 모두 주님에게 이 믿음을 받아 달려가는데 주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요 관리하시는 분이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완성자이십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위에 증인들이 구름떼처럼 둘러싸고 있지만 거기 눈길을 많이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눈은 주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바라보자” 했는데 원문의 뜻은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여기저기 보던 눈을 거두어, 오직 한 곳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만 바라보아야 됩니까? 거기가 목표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결국은 그 믿음의 최종 목적지인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해 주는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벧전 1:9).

열심히 달리자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토끼 꼴이 되면 안 되니 쉬지도 못합니다. 올해도 달려야 됩니다. 송구영신예배 드린 게 언제라고 벌써 육일입니다. 세월 정말 빠르지요. 이 세월보다 더 빨리 달려야 이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달리는 겁니까? 첫째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은 그렇게 굳센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그저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거저 주겠다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땅이니 기어이 돈을 주고서라도 구입해 내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본향이 있으니 무거운 것이나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왕궁의 부귀영화도 내던졌고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이 땅의 온갖 고난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교회생활이 기본입니다. 천하장사도 밥 안 먹으면 약해지고 나중에는 죽습니다. 주일, 금요일, 토요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약해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이라 했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돈 내고 등록해도 가기 싫은 마음 못 고치면 돈만 날립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첫째 믿음을 잘 지키고, 둘째로는 삶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들락거리고 말씀과 기도엔 열심을 내면서도 삶은 안 바뀌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달리는 믿음대로 사는 달리기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시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 따라 살고 자존심 따라 살고 과시하는 기분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기쁨으로 삽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섬기고, 참고, 용납하고, 아껴주고, 내 책임을 다하며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죄의 짐을 덜어 주셨는데 그 무거운 죄의 옷을 다시 걸치고서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삶을 돌아보며 한 해를 잘 달릴 때 믿음의 달리기에서 승리하려면 특히 어려울 때 잘 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무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 어려움이 닥치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 그 때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은 모두 그렇게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자녀 문제로, 세상 생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실패가 아니라 그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겠지요. 그런 기회를 놓치면 지는 겁니다. 기회를 잘 살려 믿음으로 이길 때 시험에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결론은 하나지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 삶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마지막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셨기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주관하시고 완성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지금 겪는 어려움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증인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며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새해에도 열심히 삽시다. 주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권수경 목사)